

# “10년포교 하루아침에 무너져”

## 도박승 구속 파장과 대책

조계종의 일부 스님들이 도박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충격이 교계를 뒤덮고 있다.

공중과 방송은 물론 일간지와 주간지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해 불교계의 '망신살'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보도를 접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허탈과 분노'를 가누지 못했다.

**원인**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돌발적인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찰 경영에 있어 삼보정재의 책임이 투명하지 않고 종단 내부에서 심심하게 거론돼 온 '도박승'에 대한 설을 묵인해 온 저간의 상황이 이번 사건으로까지 비화했다는 분석이다.

승단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승단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무너뜨렸다는 점도 '출가정신'의 부재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 개혁종단이 출범 당시 외쳤던 비리승 척결 의지를 담보해 오는 등 승종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들은 최근 11개 단체가 잇달아 내놓은 성명에서 날카롭게 거론되고 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스님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는 물론 이번 사건을 종단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경제 불황에 보름 이상 계속된 폭우로 수재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도 "스님들은 뛰하는 사람들이다"는 비난과 함께 사회적인 충격을 배가 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빠르게 사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참회와 사과를 담은 총무원장의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월 한 차례씩 포살법회를 열고있는 중앙총무기관이 이번 사건을 두고 대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의아해 하는 교계의 시선도 있다.

총무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의 엄중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문책과 행정적인 방지대책으로는 정정 승풍회복의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많은 불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단이 자정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관해서는 안된다.

9월 7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제133회 임시총회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중앙총회의원 1명이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총무원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불교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이다. 사건의 파장은 일선 포교당과 지방 사찰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방의 한 스님은 "신도가 낙엽 떨어지듯 떨어져 나갈 위기"라는 말로 이번 사건이 승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 시켰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포교일선의 스님들은 "10년 포교 성과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관해서는 안된다. 9월 7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제133회 임시총회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중앙총회의원 1명이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총무원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불교계 파장** 이번 사건이 불교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이다. 사건의 파장은 일선 포교당과 지방 사찰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방의 한 스님은 "신도가 낙엽 떨어지듯 떨어져 나갈 위기"라는 말로 이번 사건이 승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 시켰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포교일선의 스님들은 "10년 포교 성과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 ‘비리승 척결’ 개혁종단 의지 재검토 이판-사판 구분 제도적 장치 필요 사찰운영위 가동 정재 효율적 관리

내리는 느낌"이라며 "불자들이 보기가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PC통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불자들의 분노와 자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통신에는 스님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스님들은 한결같이 참회와 용서를 호소할뿐 변명의 여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어쩌다 한 번'의 차원이 아니라 '상습적'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승가의 계율의식과 세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좀 밝히기를 거부한 한 학자는 "불교의 도시화 현상이 낡은 하나의 폐단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수행과 포교, 일선 행정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진단했다. 즉 승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판과 사판'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과 사판으로 파장을 놓고 있는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마무리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은 물론 소속 사부대중 모두의 뼈저린 자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불자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을 '재발심'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판과 사판으로 파장을 놓고 있는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마무리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은 물론 소속 사부대중 모두의 뼈저린 자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불자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을 '재발심'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스님들의 도박 사건이 발표된 14일 참회 성명을 발표하고 6일간 단식에 들어갔던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스님(사진 좌)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사무처장 대관스님이 19일 단식 해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 이번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낸 11개 단체는 종단과 승가의 참회와 자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선의 대책을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사찰 경영이 투명하게 유지 되기 위해서는 주지스님 혼자 정재를 관리하는 현재의 풍토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는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중범에 명시됐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사찰의 불사를 포함한 각종 운영에 7인에서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찰운영위원회의 가동이 삼보정재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또 삼보정재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게 주요 소임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외부 기관

무원은 청정승풍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특히 도박과 같은 악성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영배스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 종단 내부에 악성 루머들이 떠돌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며 사부대중의 자숙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 손을 대기 전에 종단 내부에서 비리승을 척결하는 종단의 강력한 호법의지를 촉구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종단 일각에서는 "법적장치 보다 중요한 것은 승가 개인 양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이란 어차피 한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계율 의식을 고양하는 승가의 분위기가 도출이 보다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판과 사판으로 파장을 놓고 있는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마무리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은 물론 소속 사부대중 모두의 뼈저린 자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불자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을 '재발심'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비구니회관이 마침내 기공식을 갖게됐는데 감회가 크시겠습니다. ▲전국 7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간절한 열원이 모아진 불사입니다. 85년 회관건립을 발원한 이후 5년여전부터 수서동에 사유지를 불하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기공식을 하기까지 길다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지문제도 풀어야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종단의 후원 등이 큰 힘이 됐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은 가람호지등에서 특히 탁월하시다는 평입니다. 절에서 활동도 많으신데 굳이 비구니회관을 건립하신 까닭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수요 인터뷰** 비구니회관 기공식 갖는 광우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 “수행-포교 결집 공간”

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기존의 포교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대중속으로 파고드는 현실적인 포교활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스님 개인의 활동력을 결집시켜 더 큰 힘으로 이뤄내는 터전이 바로 비구니회관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회관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운영되나?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의 교육과 계단활동 등 직접적인 수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목동청년회관 양친구체육센터 등을 운영해 대 사회적 활동을 펴 왔습니다. 새로 지을 비구니회관은 이러한 틀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역할하는 산실이 될것입니다.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해주시고. ▲먼저 비구니스님들의 교육을 재검토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미래 정보화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수행과 포교 사회 복지 등 불교 전반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펼 것입니다. 유아 장애인 결혼가정 청소년 위안부 등 특수포교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밖에 지역사회교육을 위해 회관을 개방하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동참을 유도해 포교의 기능을 함께 펼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스님 전문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으로 쓰일 것입니다. -회관 준공예정인 언제쯤이지요. ▲3년후인 2001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95년 7월 회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회관건립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회관준공을 위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회원스님들 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기자 (yryu@buddhapia.com)

이 판과 사판으로 파장을 놓고 있는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마무리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은 물론 소속 사부대중 모두의 뼈저린 자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불자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을 '재발심'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 목어 '제 2 건국'의 조건

여름이 가고 있다. 악몽같은 물난리 속에 수해의 상처를 남겨놓고 계절은 무심히 가을로 가고 있다. 물에 잠겼던 버가 하늘을 향해 머리 들어 영글어 가듯, 우리는 망연자실했던 그 자리에서 마을을 모아 복구의 삼짍을 하고 있다. 여름뒤에 가을이 오듯 우리네 삶에도 새 계절은 그렇게 오나보다. 이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폭우속의 우리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다시 일어선다면 언제 또 올 여름 같은 천재와 인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사람살려 사람살려 하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미안해 미안해..." 급류에 휩쓸려가며 구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도 어쩔 수 없었던 여인. 어린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풀섬을 뒤지는 젊은 엄마. 한 사람이라도 살려 보려고 물 아끼지 않고 나섰다가 몸을 달리던 의인들. 홍수피해를 목격하면 서도 버젓이 캠핑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이들. 잠시 근무에 누렸던 공무원들. "저 잘나빠진 라면이나 주고..." 대 피소에서의 불면 여인의 소리. "이렇게 나와서 모두들 도와주니 감사하죠" 이웃의 응징에 고마워하는 아주머니. "우리집에도 물이 찰랐는데 그랬으면 3천만원의 손해 봤을 거예요" 피해를 면한 중국집주인의 자강면 무료 점심공양. 2년전 엄청난 물난리를 겪어 '수해

백서'까지 펴내고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 경기도의 예방행정 실종. 집중호우에 주택 1만6천채와 농경지가 침수됐으면서도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 1명에 불과했던 8월 4일 일본 니가타현의 재해예방의식. 수해복구에 비지땀 흘리는 현장을 지나가는 자가용 휴가행렬. 인근에서 골프치고 낚시하는 이들. TV화면 하단에서 수시로 천원씩 올라가는 ARS 수재성금. 물난리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되짚어 보면 무엇이 '제 2 건국'의 힘이 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될지 알 수 있다. 힘은 키워 축적하고 걸림돌은 하루속히 고치고 버려야만 한반도의 새로운 50년과 21세기가 희망으로 열릴 것이다.

## 조계종 호법부장 영배스님에 듣는 대책 관련자 중징계...재발 철저 방지

"총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스님들에 대해 강력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영배스님은 이 미 종단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 징계에 결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스님들이 형사 처벌을 면키 어려운 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승려



방법을 적용해 최고의 징계를 할 방침이라는 것. 또 영배스님은 "사법처리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스님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 종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련자의 징계와는 별도로 총

# 전국 비구니회관 기공식 범회

### 범회안내

- ▶ **종 명** : 석주큰스님
- ▶ **일 시** : 1998년 9월 10일 오후 2시 (음력 7월 20일)
-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부지
- ▶ **문 의** : 비구니회  
Tel: 02)733-5467  
02)734-3577  
Fax: 02)735-6789

오랫동안 염원하던 비구니회관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비구니활동의 종합도량이 될 것입니다. 다년간 한평사기와 한평짓기 운동을 펼치면서 회관건립을 위해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의 수행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감동적 불사에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무 동참하시어 한국비구니의 미래를 향한 도약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약도안내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일원역하차 왕복초등학교 출구로 나오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차장 미확보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 전국비구니회장 광수 합장